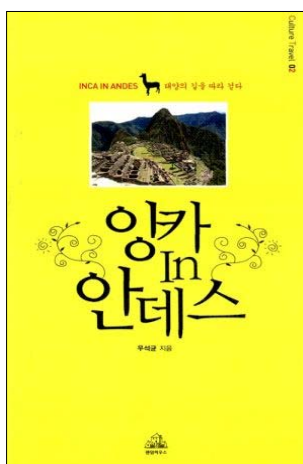




### • 김병종의 라틴화첩기행

김병종 (지은이) | 랜덤하우스코리아(랜덤하우스중앙) | 2008년 2월

남미의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무용은 물론, 문화예술과 사회 전반을 넘나드는 산문과, 83여 편의 매혹적인 그림을 통해 라틴의 열정과 문화, 역사를 만끽하게 한다. 헤밍웨이, 보르헤스, 파블로 네루다, 로맹 가리, 체 게바라, 에바 페론 등 쟁쟁한 예술가들과 대문호들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리고, 여행지 곳곳에서 만난 정열의 남미 문화와 예술, 길 위의 사람들과 일상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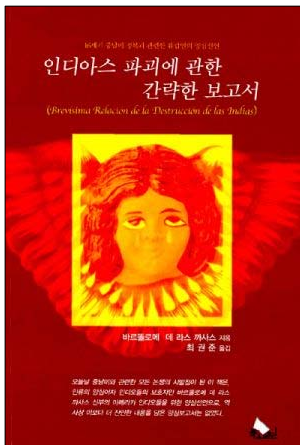
### • 잉카 IN 안데스 - 태양의 길을 따라 걷다

우석균 (지은이) | 랜덤하우스코리아(랜덤하우스중앙) | 2008년 2월

저자가 마추피추, 잉카의 길, 오루루 카니발, 티티카카 호수의 갈대섬까지 잉카문명을

찾아 안데스 산맥을 걸으며 쓴 살아 있는 남미 문화기행서다. 생생한 여행의 재미와 전문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을 동시에 담았다. 저자의 시선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신비의 문명, 비운의 사람들'로만 알려졌던 잉카 문명과 사람들에 대한 입체적인 모습을 생생히 전달한다.□

• 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



바르톨로메 데 라스 까사스(지은이) | 최권준 (옮긴이) | 북스페인 | 2007년 10월

오늘날 중남미와 관련한 모든 논쟁의 시발점이 된 책으로 평가받는 텍스트. 16세기 스페인인들에 의한 인디아스 정복 당시의 기록을 통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가 아메리카 인디오들을 위해 전하는 양심선언과 같은 책이다. 지은이 라스 까사스 신부는 이 책에서 그 시대에 끝나지 않고 이후의 역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의 시초가 된 16세기의 끔찍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다. 신부는 종교를 이유로 정의를 핑계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